

#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6, 전도와 사도행전 소개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6부 전도와 사도행전 소개입니다.

지난 세션이 끝날 무렵 우리는 전도, 전도와 사도행전의 주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일관된 복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상황화되었으며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회당, 공개 토론 포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 그들은 또한 관계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여행하면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기적인 방식으로 더 많이 진행됩니다.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여행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우리는 사도행전 8장과 4절, 11장과 20절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그들과 함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의 사역자들이 나머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모두가 사역의 부르심을 입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목사들이 사역의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돕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순전히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95%가 완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온 몸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당을 제외하면 이것은 매우 유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관계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집집으로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은 친척과 고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디아의 집에는 하인과 일꾼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집안의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친척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측면에서도 후원자, 고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로마 문화에 해당되지만 고린도와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료를 초대하는 다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 종류의 친구가 될 다소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고객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부양가족으로부터 명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관계형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나의 요점은 우리의 가족 구조가 그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관계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종류의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때로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인 소규모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 지원 그룹을 가질 수 있는 대상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올 사람들이 모두 올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로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과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서진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공유는 유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간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 그룹 외에 친구나 가족에게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커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발견을 나누면서 이미 갖고 있는 연결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나아오면서 그들 역시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바울이 가족을 다루는 일을 봅니다. 자, 이것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바울이 문화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원이 가능해졌을 때 이를 수락했습니다. 나중에 같은 구절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교회, 특히 빌립보에서 몇 가지 선물을 가져왔을 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문화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외부인이 아니었고 단지 그것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그리스-로마 세계의 시민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시민이 되는 데 훨씬 더 능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성을 봅니다. 그분은 유일신교에 대한 상호 관심을 통해 빌립보 여성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빌립보 간수는 지진을 겪으며 전도했습니다.

또 다른 영역은 치유를 통한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능력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나는 앞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도행전과 몇 가지 실제적인

고려 사항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여기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우리 모두는 1세기의 최초의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19세기에 정말 열광하고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세기의 Adoniram Judson은 사라졌습니다. 내 말은, 모든 사람이 항상 치유되고 나면 우리가 이 몸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의 견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왕국의 좋은 소식을 읽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샘플입니다. 치유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주님께서 지체하시면 우리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본질의 일부이며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광의 표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언젠가는 이 세상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실제로 대학 1학년 때 사도행전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얻는 주요 방법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관심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공개 토론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우리는 지금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거나 이미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토론과 포럼에 참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는 중풍병자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담대함을 주셔서 병고침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된 책을 읽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나누는 방법, 당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에 관한 좋은 복음주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안하면 됩니다. 그들은 보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벽에 모래를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청소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한 분이 오시면 노인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나 자신도 그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주로 은퇴한 사람들이었다. 한 여성이 찾아와 뭔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이블 쿠퍼(Mabel Cooper)라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 내 무릎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정말 나빴고 의사는 내 무릎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기도해 주신 이후로 내 무릎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피를 토해내는데 의사가 제가 폐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폐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알겠습니다. 점심 시간에 들러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나는 연쇄 흡연자인 폐암으로 막 사망한 옆집 이웃의 벽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헝겍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셀락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아마도 지금쯤 당신의 폐는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담배는 정말 끊어야 합니다.

제 의사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쨌든 나는 그녀의 점심 시간에 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시든 안 하시든,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그녀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나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그 이후로 결코 피를 토하지 않았으며 의사는 결국 그녀가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그리스도인과 꼭 같았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일에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한 그들의 관심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역사상 회심으로 이어지는 표적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행 1:8,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누가는 권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치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36, 517, 619, 846 및 9-1. 다시, 사도행전 3.12.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단지 능력이나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6장 8절에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으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더라.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능력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증거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종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고는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증거를 확증해 주실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며 성령은 유대인 집단에서 예언적 능력과 널리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Mabel Cooper의 아파트 앞에서 제 아내와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징후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너뛰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몇 가지 다른 항목이 있지만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통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의 사역을 통해 이 점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세르기오 바울이 엘레마를 목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Bargesis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게 그의 관심을 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 이르면 그 규모는 예루살렘 교회 시절과 비슷합니다.

내 말은, 그는 이것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했거나 어떤 사람이 1~2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낙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아지기 위해 우리 몸을 자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을 얻지 않습니다.



그 영예는 예수의 이름에 속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이 점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으며, 관심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배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일을 설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행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둘 다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그의 설교를 중단시키시고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또 다른 명백한 사례는 필립이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어딘가로 보내졌는데, 그곳에 도착하여 성경을 읽고 있는 아프리카 관리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관리는 그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고통받는 종에 관해 묻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까? 음,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내 말은, 필립이 그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소풍을 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모였을 뿐이고 나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는 우리 중 두 명만이 있었고 우리는 단지 몇 가지를 함께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교회 소풍인가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녀는 "거기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동생도 구원받는 방법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설정이었습니다. 내 말은, 주님께서 그것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실제로 어떤 작업도 수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가도 전도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날 무렵 30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단락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방식으로도 효과적인 전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의 사람들이 개종한 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소유물을 공유할 정도로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즉, 전도의 한 가지 방법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 극적인 표적을 세워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전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그것도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의 일치에 대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연합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의 연합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교회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것을 믿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연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연합이 됩니다. 연합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글쎄요, 이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요소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다면 거기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보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열매를 주시기 전에 시험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때로는 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통보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 수레를 타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궁정 관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는 10장 19절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너를 만나러 왔다고 하십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야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환상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영의 인도가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과 7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단계를 되돌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그가 이전에 실제로 선교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이 이미 세운 교회들을 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할 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니 아시아는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와 소아시아를 뜻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는 아니오가 일시적인 아니오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소아시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망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니오, 그는 거기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인 트로아스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약 십만 명입니다.

그곳은 매우 전략적인 도시지만 그는 트로아스에 도착했고 그는 야간 투시경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루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것은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케도니아에 이르러 매를 맞고 마케도니아를 통과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빌립보는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베뢰아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지도를 바탕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지침이었고 일부 지침은 지침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갔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를 염두에 두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를 떠나 아가야로 향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쫓겨나 아가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야에는 열린 문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아가야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좀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예언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풀은 필요하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의 형제 자매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일부를 듣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었지만, 바울이 미리 경고를 받은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포기하고 말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일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당신이 그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에 착수하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좀 주거나 테스트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대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의존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같이 바울이 사역한 곳에서 그들은 그가 겪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호소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은 더욱 강하게 버틸 수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로마로 갈 계획이었지만 죄수로서 실제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교할 수 없었을 사람들, 즉 근위대원들에게 설교하고 네로의 법정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네로가 처음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왕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향이 없을 때는 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보내심을 받은 줄을 이미 알았으나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 가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이제 그들은 파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항상 우리가 어딘가로 이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박해를 받아 이사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고,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방향이나 특별한 위임이 없더라도 우리에게서 일반적인 위임, 즉 대위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는 어디서 시작 되었나요? 그들은 그 시점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로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이 예루살렘 너머로 퍼지도록 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 즉 유대 바깥, 예루살렘 밖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그들이 페니키아와 구브로와 안디옥 출신의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같은 종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우정 전도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관심사와 공통된 요소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형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인들과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피터 같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중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피터와 열두 제자가 가졌던 문화적 연결을 넘어서는 문화적 연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런데 왜 키프로스인가? 한 가지는 아마도 항해하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바나바가 어디 출신인지 추측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은, 바나바는 키프로스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에서 사역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9:30에서는 그가 시리아뿐만 아니라 길리기아에도 갔으며 이미 시리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1절은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 일부는 나중에 분명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들은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까? 해안에는 인구가 많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5,000명의 로마 시민과 기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해안에 있는 일부 도시에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나요? 글썄, 이 경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지만 고고학이 제안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포스에서 북쪽으로 향해하면 해안 지역으로 오고, 내륙으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리시아 해안에는 인구가 더 많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 키프로스의 총독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Sergius Paulus)가 속한 가족인 세르기 폴리아에(Sergii Polliae)가 피시디아 안디옥(Pisidian Antioch) 북동쪽과 아카니움(Acanium) 북쪽 지역에 막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곳에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르기우스 파울루스(Sergius Paulus)로부터 소개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특별히 장비를 갖춘 곳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일대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학문적 은사를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 은사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도 좋아하는 만큼 제가 확실히 갖춘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특히 도시 지역으로 갔다. 사도행전 13장 시작 부분과 11장 후반부에서 그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를 위한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가 특별히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Paul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처럼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청문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로마 식민지였던 고린도나 빌립보도, 심지어 비시디아 안디옥도 로마 식민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특별히 진출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그의 교육과 경험 때문에 그에게 다른 종류의 특별한 진출을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에서 구타를 당했을 때 이 중 일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기서는 실제로 존중받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기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기서 로마 시민을 구타할 수 없다는 법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다른 곳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보낸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싶은 또 다른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나에게 열려 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여기에 가서 사역을 나누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하다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센터이다.

안디옥은 다문화적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문화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문화 리더십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도시와 다문화 지역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장 17절과 20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로마 아시아 전체에 퍼졌는데 에베소는 로마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에베소에서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의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다른 종족과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것이며, 그것은 더 빨리 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세대의 교체가 4년 정도 되는 캠퍼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지만 4년이 걸립니다.

아프리카의 법원 관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유학생들 중 일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귀하가 어디에 있든, 다문화 장소, 그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룹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500마일이나 700마일을 여행하거나 여러 곳을 여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소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데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은 그런 곳이었고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국 내에서 바울의 목표는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쎄, 그것은 로마가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가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로마에서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국의 중심부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로마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곳에서 아주 잘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마도 인터넷이 그 예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회중 지향적인 것이 있으면 좋지만,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전력망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무엇을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나는 회심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를 사랑합니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일부 신흥 무신론자들은 인터넷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뱉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다른 것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은 한 분야의 지식인인 지식인에게서 뭔가를 따오기도 하지만, 그들은 철학에 대한 지식이나 그들이 풍부하게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금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인터넷상의 일부 새로운 무신론자들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일부 무신론자들을 알고 있으며, 일부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일들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관해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접근 측면에서 보면 물류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물류와 행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주로 해당 문화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화와 관련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키프로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에베소 근처, 아테네의 아테나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에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물류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처음 3세기 동안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주로 교회가 모이는 곳이다.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내 말은,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했고 그들은 더 큰 집이 있을 때 더 큰 집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가정집회와 더 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박해가 있으면 가정도 더 쉬워집니다.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 걸어야 할 경우 사람들이 집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했고, 가지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좀 더 친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팀 사역도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다른 곳에서는 사도행전 13장의 처음 두 구절에서 팀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팀으로 파견되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갈 때, 그는 함께 갈 디모데를 모집하고, 이어서 누가도 그들과 합류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멘토링해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도시의 대표자들이 헌금을 나르기 위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누가는 제사에 대해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딱 한 번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팀 사역이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종종 혼자 밖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의 바울처럼 같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곳에 혼자 나갔다가 필요 이상으로 구타를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논리적인 문제는 리더십 구조입니다.

그들에게는 장로나 감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더십 구조는 더 큰 문화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지역 마을의 일을 지도하는 장로가 있었고, 회당을 감독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감독자라는 직함은 일부 그리스 리더십 환경에서 사용되었으며 히브리어인 마바카르( Mabachar )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발음한다면 사해 두루마리에서는 쿼란 공동체의 감독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때로는 문화에 이미 사용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 내에서 리더십 구조의 일부를 이어받았습니다. 바울은 지역 회중에 안정을 줄 지도자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그들이 이 교회들을 거쳐 돌아갈 때 그들은 막 이 교회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그리스도인 장로들이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잠시 동안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네 번째 문제인 또 다른 물류적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는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예를 따라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에게 위임하고, 70장로에게 위임하거나,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사람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 때때로 그것이 나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임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변하거나 뭐든지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다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목회서신에서 “갑자기 손을 얹고 아무에게도 너무 빨리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 이것은 강조점입니다. 이곳은 적어도 10년 동안 신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일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키우세요. 하지만 풀은 계속해서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도 영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영의 능력 부여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 증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설교 마지막 부분인 2장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글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필립은 좀 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나갔고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손을 얹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글쎄, 그게 무슨 의미야?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요 초점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영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곳으로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100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수준의 성숙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경험이 더 많은 파트너가 있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더 경험이 많은 파트너를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리더십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가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영의 역사를 신뢰하고 다른 문화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에 도달하는데 이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섯 번째로 물류는 경제적 자원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면 소유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유물을 나누는 것에 관해 더욱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자원이 있는 사람들을 날려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선물이 다르며 경제적 자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올 선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와 함께 다니며 자기들의 자원으로 그를 섬기던 제자들과 함께 가더라.

이들은 꽤 부유한 여성들이었고 선교 사업을 돕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으로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먹을 음식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히 여겨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육 자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1808년에 회당장이었던 크리스보의 경우를 봅니다.

그는 언급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신자가 됩니다. 글썄, 그는 이미 배경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미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신자였습니다. 바울과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아주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토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자신의 영향력 있는 집단 내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주장. 그래서 교육 자원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경이 어부였든, 어부였든,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경이 목자라면 모세와 다윗,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겨 두어야 할 어떤 것들을 우리 뒤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배경에서 것들을 취하여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경에는 위로가 필요한 몇 가지 끔찍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주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자원을 무시하지 맙시다. 사람에게에는 재능과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였을 때, 교회에 연극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에서 그녀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타 전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었고, 기술을 연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본거지나 지지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당신이 본거지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 있든 같은 나라 내의 다른 종류의 상황이든 간에 타문화 상황으로 나가면 그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덜 복음화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든 기도 지원이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본거지에 다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는데,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모금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딱 두 번뿐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 20명 정도 되는 가까운 기도 후원자들의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사람들 중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에 불과합니다.

다른 번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도 업데이트를 보냅니다. 글쎄, 어쨌든 또 다른 물류 문제, 법적 사과 또는 홍보 사과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정말로 기독교인과 예수님을 잘못 표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못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풀은 거짓 비난을 받았고 당신은 이렇게 긴 사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변증이 중요한 일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의 예를 따른다면 우리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은, 모든 소문을 반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회의론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비방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둘 다와 함께 살아야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변증, 홍보 변증은 가능한 한 사람들을 진실에 노출시킵니다. 만약 그것이 초대교회의 거짓 고발이라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과 식인 풍습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2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이 형제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사랑해.

아, 근친상간.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 식인 풍습.

글쎄요, 하나님께서 변증론자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진실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글쎄,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물류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순진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박해와 내부 분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물류는 훌륭하지만 조만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만화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주제를 함께 추적하고 싶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대한 몇 가지 소개 배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섹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대한 몇 가지 소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 권으로 된 작품이나 여러 권으로 된 작품이 있는 경우, 나중 권이 이전 권의 끝 부분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 많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 부분에 요약되고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요점, 누가가 특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요점을 반복합니다.

역사가들에게는 상황을 재배치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의역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표현의 차이는 때로는 우연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며 확실히 누가복음처럼 잘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상황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누가복음 1장 3절의 첫 번째 책에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볼륨에서는 스폰서에게 헌정할 수도 있습니다. 테오필루스는 그의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책의 배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관심을 끌고 싶은 저명한 사람에게만 헌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작품을 유포하고 어쩌면 제작 중인 일부 사본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테오필로가 누가가 아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테오필루스도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가장 뛰어난 테오필루스입니다.

그는 분명히 매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로마 세계의 눈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카스트와 계층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했지만, 누군가가 덜 도달했지만 더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에는 샘플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플 증거 중 일부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살아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제시하시고, 그들이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시며,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유대 전통에서 천사는 사람의 음식을 실제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육체성, 즉 부활의 육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도회에 대한 배경지식입니다.

음, 이것은 부활과 오순절 사이의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입니다. 안타깝지만 오순절은 부활과 오순절 사이,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사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지 약 50일 후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12절에는 복음서에도 나오는 감람산, 즉 감람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14장 4절에 따르면 그곳은 메시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말하면, 당신은 그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심지어 위치적인 면에서도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원에서 동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져 있고 그 위로 수백 피트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그것은 안식일의 여행에 가깝습니다.

안식일의 여행은 약 2000큐빗이었는데, 1큐빗은 대략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 사이의 길이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1장 13절은 다락방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은 예루살렘의 가장 부유한 지역인 위쪽 도시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하수구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즉 예루살렘의 낮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더 넓은 숙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다락방은 다소 다락방과 같았지만 모든 현자가 다락방에 모였다고 기록하는 일부 텍스트, 일부 유대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위층 방을 가질 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12, 왜 12를 말하는 걸까요? 12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입입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유대인 갱신 운동이 12지파의 회복을 생각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12명의 지도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12개의 이름은 다른 목록의 이름과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변형은 크지 않지만 약간의 변형이 있고 때로는 같은 사람의 목록에 있는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글썬요, 사람들이 여러 개의 식별 이름을 갖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그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몬과 같은 매우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이름과 함께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열심당원 시몬, 열심 당원 을 뜻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려면 가나안 사람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 여기에는 없지만 제자들 중에는 또 다른 유다나 두 명의 다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내 말은, 마리아가 유대와 갈릴리에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인 것처럼 그것들도 모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실제로 제국의 다른 곳에서 나온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설명하는 장소와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14. 더 넓은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경시되지만 여기서는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주목할 만합니다. 기도의 언어는 때로는 유대 밖의 기도원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누가는 주로 그것을 위해 회당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에서 이 배경을 매우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배교한 사도 대신에 그들은 120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해 두루마리에는 12명의 특별 관리를 포함하는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들임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120이 정확히 12는 아니지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에스라 시대에 처음으로 율법을 전달한 장로가 120명이었다는 불확실한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글썄, 이미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날짜에 이스라엘에는 120명의 지도자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해 두루마리에는 남성 10명당 성직자 1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20명이 있다면 12명의 사도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명을 언급한 누가의 요점은 단순히 다락방이 적어도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거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베드로는 나중에 유대인 랍비들이 콜 보메르 (kol vomer) 라고 불렀던 일반적인 유대인 해석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의인의 고난을 다룬 시편을 다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의로운 고난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해당되어야 합니까?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은 모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유명한 비난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한 임무를 위해 제비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와 로마 세계에는 총독이 가는 정치적 직책이나 임무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역대상 24장과 25장 등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해 두루마리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랍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Josephus)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누가 먼저 죽임을 당할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제비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리스 사회에서 점술의 한 형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이전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초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초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향을 바칠 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글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글쎄, 어떤 사람들은 이중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요셉 바사바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때 삼중 이름인데, 음, 이것들은 모든 자격을 충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직분을 채우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읍시다. 따라서 이중 이름, 삼중 이름은 실제로 꽤 흔했습니다.

특히 요셉과 같은 특정 이름이 너무 흔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를 추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6부 전도와 사도행전 소개입니다.